

미국의 대외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의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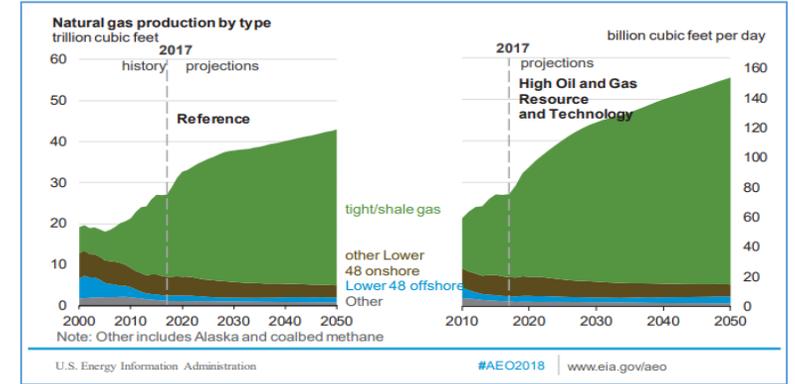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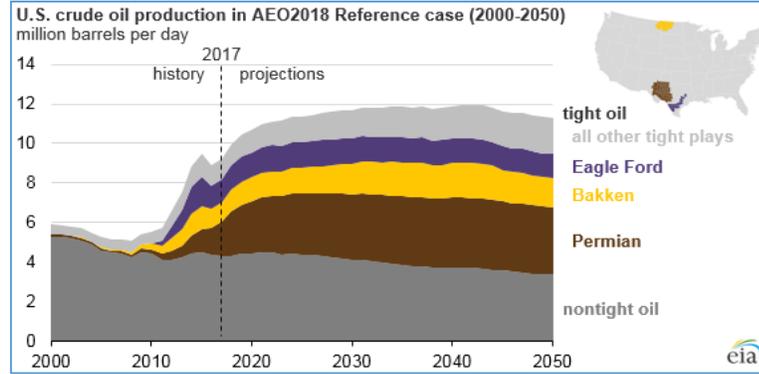
2019. 8. 30

이재승 (고려대학교)

에너지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위상과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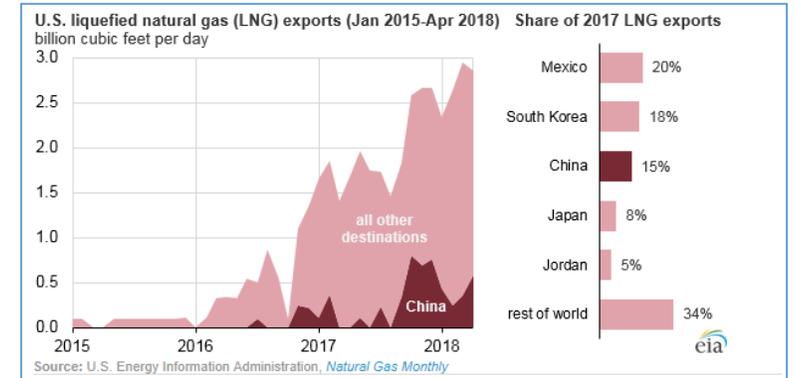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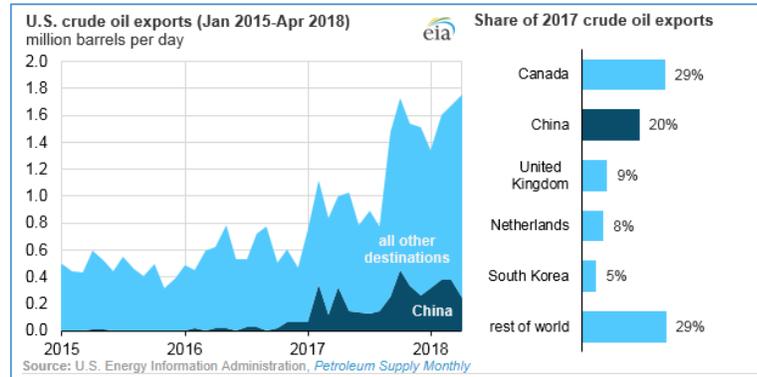
➤ 생산국으로서의 위상 (2018)

- #1 석유생산국
[... 러시아, 사우디]
- #1 천연가스 생산국
[... 러시아]



➤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(2018)

- #4 천연가스 수출
- #8 원유 수출국
-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



➤ 기존 정치·경제 슈퍼파워 + 에너지

- 에너지 수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 확보
- 저렴한 원료를 바탕으로 한 석유/화학 부문의 산업경쟁력 확보
-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도 함께 확보

→ 대외 전략에 있어서 자율성 및 선택권 증대

미국 에너지와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

➤ 새로운 스윙 생산국 (Swing Producer)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

- 미국 에너지 역량 강화(An energy dominant America) 선언 (2017. 6): 국내 전통 및 비전통 에너지원 생산과 수출 확대
- 미국의 수입 감소 및 수출 증대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재고 증가 →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
- OPEC 리더십과의 전략적 협상: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내 Swing producer로서의 영향력 확대
-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: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증대
- 신규 시장 개척: 가스 및 석유 수출 / 인프라 구축 / 복합 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 (e.g. 디지털 시티)
- ASIA Edge 전략을 통한 (동남)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의 진출 확대

➤ 선택적 개입을 통한 중동 내 영향력 유지

- 중동 내 영향력 확대와 지역 안정화 요구: 제한적 개입주의와 유사한 노선 견지
- 사활적 개입(카터독트린)에서 선택적 개입으로의 전환
- 방어적인 중동정책에서 능동적인 옵션 증가
- 페르시아만 주변 안정화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: 경제성장 및 국제원유가격 안정화
- 중국 및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 견제 필요성

미국 에너지와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 (2): 한국에의 함의

➤ 미·중 무역 갈등의 에너지 부문에의 파급

- 보호주의 기반의 무역 교섭 진행에 따른 에너지 부문에의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
- 중국의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안보에의 영향은 제한적임,
- 남중국해 분쟁 : 아시아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, 군사적 대응 강화
- 일대일로 전략과 Asia EDGE 전략과의 상충 가능성

➤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의 파급효과 지속 및 관리

- JCPOA 탈퇴 이후 이란 제재의 유지 예상
- PdVSA 재정압박 수위 조절을 통한 베네수엘라 원유생산 간접 통제 유지 예상
- 안정자(stabilizer) vs 교란자(Disrupter)의 역량을 동시에 보유

➤ 한국 에너지 정책에의 함의

- 미국은 수급의 대상이기보다 **에너지 안보 파트너**로서의 의미를 부여: **양자-지역-다자 차원의 논의구조 필요**
- 미국 에너지 수입을 **책임(liability)에서 영향력(leverage)으로** 활용할 수 있어야 함.
- **에너지 지정학적 위험 요소는 상존하며, 한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: 미국 및 국제협력 기제 마련**
- **포괄적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 의:** 수급 뿐 아니라 수송, 환경, 인프라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.
- **대외 에너지 정책 역량의 강화:** 자원외교의 실패 경험을 딛고 나아가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생존 가능.
- **해외 신규 시장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십 형성:** 글로벌 에너지 시장 경쟁력은 컨소시엄 위주로 편성됨.
(끝)